

출처주의의 새로운 경향과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oday's Concept and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the Provenance in Archives Management

방 효순(Hyo-Soon Bang)*

◁ 목 차 ▷

1 서론	3.2 출처개념의 확대
2 출처주의의 발전	3.3 출처의 규명과 적용
2.1 출처주의의 역사적 발전	4 새로운 출처주의 개념과 그 적용을 위한 과제
2.2 기록물관리에 있어 출처주의의 적용	5 결론
3 새로운 기록관리 환경에서의 출처주의	<참고문헌>
3.1 기록관리 환경의 변화	

<국문초록>

본 연구는 출처주의 발전과정, 범주, 그 의미를 살펴보고 오늘날 기록관리환경에서 새롭게 변화된 출처주의의 경향을 검토, 기록물 관리에 있어 이것의 적용을 위해 고려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단일 출처, 물리적 기록물체를 강조하던 기존의 출처주의는 행정조직의 변화와 유동성, 네트워크 발달 등에 따라 점차 개념적·추상적·기능적 출처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새로운 출처주의의 적용을 위한 방안으로는 먼저 기록물 자체에 대한 기술과 생산자 그리고 그 생산내력에 대한 기술을 분리, 각 영역을 링크시켜 통제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별 생산연원의 추적은 물론, 기록물에 대한 다양한 출처의 규명도 가능해진다. 또 분류와 스케줄을 통합, 생산단계, 혹은 그 이전 단계로부터 출처를 통제하기도 하며, 전자기록물의 경우 메타데이터의 구축을 통해 출처와 내력관계를 관리하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적 기술규칙의 마련을 통해 출처정보의 구조화와 통제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출처 및 폰드 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그 일관성 유지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cent trend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Principle of the Provenance in today's new environment of Archives Management and to identify the effective way of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Provenance to Archives Management. Because of the continued change and the flexibility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network, the traditional concept of the Principle of Provenance which put emphasis on a single creator and the physical entity of the archives has been gradually modified to a rather conceptual, abstract and realistic one. A method to apply the recent concept of the Principle of Provenance is to separate the descriptions of the record entity, the creators and the context and use the organic linkage of the separated description areas. Also we can control the provenance from the current stage or even from

*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대우전임강사

the pre-current stage by utilizing the classification scheme and the retention schedule. In case of the electronic records, we can manage the provenance and the context by using metadata inherent in the computerized information system. Above all it is critical that we need to structure and control the provenance by building the Korean rules for archival description corresponding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it is another an essential point that we have to develop a guideline for constructing the fond and maintaining its consistency.

1 서론

출처주의는 동일한 출처-기관, 단체, 사람, 가족-를 갖는 기록물들을 그룹화시키되, 다른 출처를 갖는 기록물들과는 서로 섞이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고 하는 기록물 관리원칙 중 하나이다. 19세기에 들어 본격적으로 발전한 출처주의는 오랜 기록관리 전통에 기반해 발전한 하나의 이론화된 실무원칙이라는 점에서 국가별 기록관리 환경과 역사에 따라 그 해석과 적용 방식에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과 함께 기록관리 환경이 변화되면서 그간 기록관리의 핵심 원칙을 이루던 이 원칙에 대해 그 적용상의 어려움과 타당성을 문제시하고 있는 입장이 대두되고 있다. 기록물이 전자화되고 물리적 형태를 상실하는 상황에서 종래의 전통적인 관리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해석의 다양성, 적용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출처주의의 일반적 개념과 의미는 여전히 유효하며, 다만 이를 적용하는 방식이나 관점의 변화가 요구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출처주의에 대한 역사적·이론적 논의들의 제검토와 함께 최근 설득력을 얻고 있는 출처주의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한다. 또한 변화된 기록관리환경에서의 이러한 출처주의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 이를 위한 고려될 수 있는 몇가지 적용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오늘날 출처주의가 갖는 의미와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2 출처주의의 발전

2.1 출처주의의 역사적 발전

출처주의가 발전한 19세기 이전에는 관련성 원칙(principle of pertinence)이 기록물관리를 위한 기본원칙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이는 ‘기록물을 주제나 내용, 혹은 장소 등에 따라 정리’하는 방식이었던 까닭에 기록물의 연원(origin)이나 생산된 순서는 무시되었다. 이 원칙에 의한 정리방식은 입수순서에 따라 기록물 등록을 마친 후, 등록소마다의 일정 분류 체계를 적용하여 분류·정리하는 것으로, 하나의 주제사안에 대해선 하나의 파일만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록물은 접근점도 부여받고, 색인도 작성되었다.

19세기 중반에 이르면 출처주의가 발전하는데, 여기에는 당시 기록물의 양적 증가가 그 배경이 되었다. 근대 국가의 출현으로 국가 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각종 사무기기의 발달로 기록물 생산이 많아지면서 관련성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던 개별 기록물에 대한 서지작성이나 재정리 작업이 아키비스트에게 막중한 업무부담이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기록물 정리방법에 변화가 요구되었고 출처주의의 적용이 그 해결책으로 모색되었다.

한편 역사학 연구방법의 변화도 출처주의 등장的主要原因이 되었다. 당시 역사학계에서는 역사에 대한 객관적 해석이 중시되면서 기록 자료의 원소스를 규명하고자 하는 요구가 매우 높아졌다. 이 때 기록물은 가능한 원래의 상태대로 유지될 것과 생산기관에서 부여한 원질서대로 관리될 것이 중시되었다. 새로운 순서대로 재정리하거나 다른 기록이 덧붙여서는 안된다고 본 것이다(Gränström 1994, 13).

이러한 상황에서 혁명을 거친 프랑스가 폰드 존중의 원칙(respect des fonds)을 선언, 출처주의가 근대적 기록관리원칙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¹⁾ 그간 프랑스는 동일한 연원을 갖는 기록물들은 생산기관(agency)에 따라 정리, 보존하는 방식을 취해 왔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 출처성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혁명 이후, 주요 기록보존소들이 설립되

1) 그러나 출처존중의 원칙과 개념은 이미 여러 국가에서 발전해 왔던 것이다. 덴마크에선 1791년 왕실 직속기관의 기록물을 정리하는 데에 그 원생산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Pohjola 1994, 87). 19세기초가 되면 출처주의 개념이 보다 본격적으로 확산되는데, 나폴리는 1812년경, 독일에 서의 'Provenienzprinzip'라는 개념이 1816년경부터, 이탈리아는 1820년경, 네델란드의 'Herkom sbeginsel'는 1826-28년경부터 이미 법규를 통해 공식화되었다.

고 여러 기관의 기록물들이 이곳에 통합되면서 그 연원 규명에 혼동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국립기록보존소장이었던 까뮈(Camus, A. G.)와 다우나우(Daunau, P. C. F.)는 이를 위해 생산기관의 특성에 따라 기록물을 다음 5영역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하였다.

<표 1> 초기 프랑스에서 제안된 폰드영역의 구분

영역 구분	내 용
입법 영역	혁명의회 관련기록
행정 영역	새로운 부처(Ministry) 관련기록
통치 영역	주(state) 재산 관련기록
사법 영역	재판소 관련기록
역사 영역	역사적 기록과 나머지 4개 영역 기록

즉 프랑스의 폰드존중 원칙은 먼저 유사한 성격을 갖는 특정 기관-기관·조직·가족·개인 등-들을 모아 하나의 폰드로 구성, 총 5개영역으로 제시한 것이었다. 다만 폰드 내에서 기록물들은 주제별로 분류되며, 동일한 주제 내에서의 항목은 다시 연대순·지리명순·알파벳순 등에 따라 정리하도록 하였다. 또 중요한 기록은 그렇지 않은 것 앞에, 일반적인 것은 특수한 것 앞에 정리하도록 하였다(Schellenberg 1956, 170). 그러나 당시 이 원칙은 유사 성격의 기관들을 모아 폰드를 구성한 것이었을 뿐, 기록물의 연원이나 기능까지 고려한 것은 아니었다. 또 모든 기록물에 보편적으로 적용된 것이 아닌, 1790년 이전의 역사 기록물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출처주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들의 주장은 이제까지의 관련성 원칙에 입각한 분류·정리방식을 포기하도록 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다.

그 후 1841년 역사학자였던 웨일리(Natalis de Wailly)가 “아카이브즈의 폰드(fond d’archives)”를 제안하면서 폰드존중의 원칙을 더욱 발전시켰다. 일정 연원(조직체(body), 공공조직(establishment)·가족·개인)으로부터 나온 일체의 기록물들을 각기 하나의 폰드로 구성하고 그 안에서는 일정 순서에 따라 기록물을 정리·배열할 것을 제안한 것인데,

이때 각 폰드는 다른 폰드와 섞여선 안된다고 보았다. 즉 웨일리는 까뮈 등과 달리 기록물의 연원별 폰드를 주장하였던 것이나, 폰드 내에서는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기록물에 대한 새로운 정리방식을 허용한다는 점에선 이전의 원칙과 상통한다. 이 주장은 오늘날 출처주의 확립에 크게 기여하게 되며 이후 전체 유럽 및 북미대륙의 기록관리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19세기 폰드는 하나의 생산자에 의해 생산·관리되는 아카이브즈 자료 전체를 의미하는 것에 머물고 있다(Edwards 2001).

프랑스의 폰드존중의 원칙을 발전시킨 곳은 프러시아였다. 프러시아는 1881년 7월 1일 조례에 따라 기관의 “성격”이 아닌, “행정단위”를 기준으로 폰드를 설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발표하였다. 폰드 내에서도 주제에 의한 정리방식보다는 기원이 되는 기관이나 조직의 원래 정리방식을 유지시켜야 한다고 하는 원질서존중의 원칙(Respect of Original Order, 독일에선 등록소원칙(Registraturprinzip))을 선언하였다(Schellenberg 1956, 174). 폰드 내 기록물들에 대한 본래적인 분류·조직·파일링 방식을 유지시킴으로써 해당 기록물의 증거성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이 원칙은 원래 보나이니(Fancesco Bonaini)가 1869년 투스카니 대공국에서 처음 개념화시킨 것이었는데, 프러시아의 막스 레만(Max Lehmann)이 이때에 이르러 발전시켰다. 원질서 존중의 원칙은 특히 독일적 행정전통을 갖고 있는 국가들에서 발전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대체로 행정기관(agency) 내에 등록소(Rigistratur)라는 하나의 특별 부서를 두고 있었는데, 해당 기관이 생산, 접수한 모든 문서를 등록, 자체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하며 인명색인, 주제색인 등을 통해 기록물을 검색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때 일정기간이 지나 기록물을 이관받은 보존소들은 등록소에서 이루어졌던 관리방식대로 기록물을 관리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등록소원칙, 즉 원질서존중의 원칙으로 발전한 것이다(Duchein 1983, 77). 그들은 등록소에서의 정리방식이 연원이 되는 각 기관에서의 기록물 관리방식과 순서를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기록물의 내적 통합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았다.²⁾

한편 1897년 네델란드 아키비스트 물러(S. Muller)·페이트(J. A. Feith)·프러인(R. Fruin)은 『Manual for the Arrangement and Description of Archives』를 통해 프랑스와 프러시아에서 구상된 출처주의를 정교한 관리이론으로 발전시켰다. 그들은 기록물 정리

2) 프랑스의 폰드존중의 원칙 역시 내적차원으로서, 행정기관에서의 원질서나 물리적 조직을 고려하기는 하였으나(Cook, 35), 대부분의 라틴계 행정전통을 가진 국가들은 프러시아와 같은 등록소시스템을 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폰드 내 원질서는 강조되지 않았다(Pohjola 1994, 89).

체계는 기록물을 생산한 행정단위의 조직을 반영하는 등록소 내에서의 기록물관리방식에 기초해야 한다는 프러시아의 방식을 옹호하며, 등록소의 원질서는 자의적으로 만들어지거나 우연의 소산물이 아닌, 행정단위 조직의 논리적 연속성에 따라 구축된 관리상의 질서임을 강조하였다. 이 매뉴얼은 하나의 기록물체로서의 완결성은 물론, 생산기관이 부여한 원질서까지 존중해야 한다는 출처주의의 기본 정신을 정립시킨 것이다.³⁾

당시 이 주장은 전통적인 서지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원질서 존중의 잇점을 통해 정리와 기술과정에서 아키비스트의 업무량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소극적 목적이 컸던 것이나(Horsman 1994, 55), 오늘날에 있어서는 기록물 관리의 실질적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주요 관리원칙이 되었다. 특히 폰드와 원질서 모두를 강조하고 있는 물러 등의 매뉴얼은 독일(1905), 이태리(1908), 프랑스(1910) 등지에서 출판되었고 이후 출처주의는 1910년 브뤼셀에서 각국 기록물 기술 및 정리를 위한 기본원칙으로 공식 인정받게 되었다.

한편 이상의 발전과정에서 보듯 출처주의는 폰드 존중의 원칙과 원질서 존중 원칙의 통합 개념으로 이해되나 국가별 행정전통, 기록관리의 관행, 그리고 아카이브즈에 대한 국가별 개념 차이 등에 따라 그 범주와 의미는 달리 정의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프랑스는 출처주의를 폰드 존중의 원칙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프러시아⁴⁾·네델란드·캐나다·스칸디나비아 주변국가들은 원질서 존중의 원칙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대체적으로 유럽권은 출처를 폰드존중의 원칙과 원질서존중의 원칙을 통합한 개념으로 보는 반면, 북미 중심의 영미계 국가의 경우 출처주의를 폰드존중의 원칙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Pohjola 1994, 88-89).

2.2 기록물관리에 있어 출처주의의 적용

2.2.1 기록물 정리·기술과 출처주의

기록물의 정리는 일반 도서와 같이 주제별 정리와 같은 인위적인 방식이 아닌, 원래 생

3) 원질서에 대해 물러, 페이트, 프리인은 '폰드 내에서의 정리방식'으로 보았고, 젠킨슨은 '폰드 또는 아카이브 그룹(혹은 하위 그룹) 내에서의 정리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반면 웰렌버그는 '파일링 순서'라는 시리즈 내에서의 정리방식을 지칭하는 것이라 이해하였다.

4) 최근 독일의 경우, 원질서 존중을 출처주의와 별개의 관리원칙으로 구별하는 경향도 있다.

산, 이용, 누적된 순서 등 업무절차에 따라 자연적으로 형성된 일정한 관리 질서를 따르게 된다. 관련성 원칙에 입각한 정리 방식과 달리 출처주의가 적용될 경우 기록물은 소스의 상실을 막을 수 있고 아키비스트는 과중한 정리업무 부담을 덜 수 있다. 기관간 주제어 조정이나, 아이템 단위의 기술도 필요 없어 정리 작업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아키비스트는 기록물 연원·배경·이용 등의 내력정보 파악에 그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 (Erandsson 1994, 33).

밀러(Fredric M. Miller)는 기록물 정리과정을 출처(외적출처)에 의한 정리와 파일링 구조(내적출처)에 의한 정리로 구분하고 있는데, 외적 출처에 의한 정리는 해당 기록물을 생산, 누적, 이용한 출처 관계에 따른 정리로 폰드 혹은 레코드 그룹·컬렉션·하위그룹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내적차원에 의한 정리는 폰드 내에서의 내적구조라 할 수 있는 시리즈, 하위시리즈, 파일단위에서의 물리적 그룹핑 등을 통한 기록물간 관계를 고려한 정리방식이 된다. 즉 기록물 정리는 생산적 연원으로서의 폰드와 업무의 기능을 반영하는 파일링 방식에 따라 유기적이고 구조적으로 기록물들을 정리함으로써 출처주의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Miller 1990, 60-61).

각국은 이러한 정리차원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 기록물의 계층적 그룹핑을 시도한다. 계층적 정리단위들이 기록물 기술을 통해 구현된 폰드의 내적·외적 차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1964년 홀메스(Oliver Holmes)는 '보존소-레코드그룹-하위그룹-시리즈-파일링 단위-도큐먼트'단위로 구분, 정리를 위한 각 수준으로 범주화한 바 있는데(Miller 1990, 57), 여기에서 '보존소'는 최종 기록관리기관의 차원으로 보존소 내에서 관리되는 기록물 전체를 의미하는 가장 상위의 계층이라 할 수 있다. '레코드그룹'은 기록물이 정리되는 실질적 시작점으로, 일반적으로 하나의 조직에서 생산·접수 관리하는 기록물군을 이른다.⁵⁾ '폰드'와 비교해 보면 레코드그룹은 하나의 조직을 생산단위로 보며, 물리적 정리의 의미가 보다 강조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시리즈'는 특정 기관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들의 통합단위라는 점에서 정리의 모든 수준 가운데 생산자의 기능이나 활동을 가장 잘 반영하는 계층단위이다. 그러나 기능 외에도 기록물의 이용·유형⁶⁾·주제

5) 개인 문서나 메뉴스크립트에서는 레코드 그룹 대신 컬렉션 개념을 사용한다. 컬렉션은 기록물 생산자가 아닌, 수집가가 기록물 매체, 주제 등의 공통된 특징에 따라 기록물을 그루핑하여 만들게 되는 인위적 누적물이라 할 수 있다.

6) 유형(type)에는 행정문서, 개인 및 가족 서신, 다이어리, 원화, 그림, 설계도, 악보, 사진자료, 필름, 비

등에 따라 그룹핑 되거나 미국과 같이 특정 사안, 물리적 형태, 생산·접수·이용간의 관계 등에 따라 설정되기도 한다. 시리즈 상에 원질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애매한 개인 문서 혹은 매뉴스크립트의 경우, 아키비스트가 일정 질서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파일’은 하나의 파일폴더에 함께 편철·처리되는 일련의 기록물들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관이나 조직들은 자체 파일링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만일 파일링 순서가 없을 경우, 연대순 혹은 주제에 따른 조직도 가능하다. 기타 생산·접수 날짜순, 주제·지명·인명 및 단체명의 알파벳순에 따라 파일링되기도 한다. ‘아이템’은 개별 기록물 단위로 연대순·알파벳순·지리순·물리적 필요에 의한 순서 등으로 파일될 수 있다.

한편 생산에 책임을 지는 인명·단체명, 기록물 제목, 행정 및 보존관리 역사, 범위, 내용 등의 비주제적 접근요소는 검색에도 이용될 수 있으며, 각종 출처관련 정보들이 해당 기록물의 규명을 위한 일차적 접근점으로 제공될 수 있다. 기술을 통해 제시되는 기록물의 계층구조 역시 해당 기록물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된다.

2.2.2 기록물 평가·선별과 출처주의

평가는 기록물의 보존,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인데, 증거력 있는 기록물들을 보다 많이 남기고 동시에 관련정보를 유지하기 위해 수행한다. 특히 기록물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평가선별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출처주의는 그 수행을 위한 주요 기반이 된다.

평가·선별과정에 출처주의가 적용된 것은 중세 유럽의 기록관리 전통에서 비롯된다. 당시 등록소들은 많은 기록물들과 고대 유물들을 보존하고 있었는데, 그 후 자치체가 발전하면서 이들은 등록소로부터 기록물을 이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자치체들은 특정 주요 등록소를 단위로 기록물을 선별하였는데, 이것이 평가선별에 있어 기록물 출처를 중시하는 전통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평가선별과정에 있어 출처주의가 갖는 의미도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평가선별에 내용지향적 평가선별방식이 강조되며 출처가 덜 강조된 것인데, 대표적으로 독일

디오테이프, 예산문서, 법률문서, 문학 각본, 인쇄·출판자료, 보고서, 스크랩북, 녹음자료, 지도·차트·계획서 등이 좋은 예이다.

의 붐스(Hans Booms)는 평가시 기록물군의 구조는 중요하나 이것이 관리방식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즉 출처주의는 기록물의 정리원칙일 뿐 평가수단은 아닌 것으로, 당사회의 완전한 도큐먼트와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내용지향적 도큐멘테이션 전략이 우선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경우 향후 기록물 관리방식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며, 하위 생산단위의 의사를 반영하여 기록물의 가치를 상위 하향식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또 실질적 평가과정에는 출처보다 전문 아키비스트들의 판단이 크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포스너와 쉘렌버그도 내용지향적 평가방식을 지지하였다. 쉘렌버그의 가치론적 평가론은 기록물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 기록물이 갖는 2차적 가치를 가치평가의 중요 기준으로 보았던 것인데, 그 역시 2차적 가치의 평가를 위해선 기록물 소스에 관심을 두어선 안된다고 하였다(Menne-Haritz 1994, 108-110). 그러나 출처가 평가를 위한 기본원칙은 아니라 할지라도 행정역사의 증거는 기록물의 증거적 가치를 명확히 하고 풍부히 한다는 점에서 이는 기록물의 2차적 가치평가를 위한 중요 내력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생산자의 기능, 생산과정 등에 대한 정보는 기록물 출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기록물의 내용과 2차적 가치 역시 해당 기관의 기능과 활동의 목적, 진행상황, 그리고 그 1차적 가치 등에 근거해 확인된다는 점에서 쉘렌버그의 가치론적 평가 이론 역시 출처주의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오늘날 평가이론의 다른 한 축은 입수전략에 의한 평가이다. 기록물을 정보의 이용가능성보다는 생산단계에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도구라고 보는 입장으로, 평가 역시 2차적 가치보다는 1차적 가치의 보존을 위한 업무통제의 과정이라 본다. 즉 조직의 계층상의 위치는 생산자의 위치를 반영하여 기록물의 중요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기록물을 평가하는 데에서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은 기록물 내용의 성립과정과 내력을 우선적으로 반영, 평가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기록물이 생산된 활동의 객관적 배경 혹은 내력에 대한 정보를 중요 평가기준으로 삼는다. 결국 입수전략은 출처를 기반으로 하여 생산자들의 영향력과 기능을 평가하고, 기능 수행에 따른 각종 활동들의 역사적·사회적 중요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입장이다(Menne-Haritz 1994, 118-121).

3 새로운 기록관리 환경에서의 출처주의

3.1 기록관리환경의 변화

오늘날 기록관리환경의 변화와 함께 전통적 개념의 출처주의는 관리원칙으로서의 타당성에 커다란 도전을 받고 있다. 폰드가 분리·통합되거나 개별 기록물이 여러 폰드에 분산소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폰드의 독립성과 안정성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행정계통과 그 특성의 변화에 기인하는데, 국가 활동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전통적인 출처주의의 기반을 형성하던 행정 조직체계가 이전에 비해 훨씬 유동적 성격을 갖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자치정부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중앙 및 지방정부 간의 책임에 대한 재정의가 요구되는가 하면, 행정 조직에 있어서도 특정 기관 및 부처의 신설·폐지 등도 매우 빈번해졌다. 신설·폐지되는 경우에도 한 기관이 여러 개의 기관으로 분산되거나 반대로 여러 기관이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부처의 명칭 변화는 물론, 새로운 기능의 설정, 그리고 다른 부처에서 수행하던 일부 기능의 편입·이전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기능은 그대로이나 명칭만 변하는 경우, 혹은 명칭은 그대로이나 기능의 일부가 변동되는 경우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조직 단위로 수행되는 종래의 기능수행방식은 최근 기능을 위주로 조직이 편성되는 보다 역동적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데, 네트워크 조직이나 매트릭스 조직 운영방식과 같이 특정 단위부서가 존재하지 않고 소속 직원들이 기능적으로만 존재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또는 부처 내 많은 조직들이 하나의 단일 의사결정체를 결성, 특정 활동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반대로 한 개인이나 조직이 다양한 기능과 책임을 수행하는 등 종래 조직개념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다양한 조직운영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조직 및 기능계통의 빈번한 변화는 조직계통 상에서의 생산성(creatorship)에 대한 소재규명을 매우 어렵게 하며, 그 결과 전통적인 출처주의는 오늘날의 기록물관리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해석이 요구되고 있다.

출처주의 개념에 변화를 가져온 또 다른 배경은 정보기술 및 테크놀로지의 성장에 따른 네트워크의 발달과 전자기록물의 출현이다. 종이기록물의 경우, 조직차트·업무과정·정책·작성자 및 접수자의 이름·기록물의 내용이나 내력에 관한 요소·날짜·다른 문서 및

파일의 참조·기록물의 물리적 배열, 타 많은 관련 정보들로부터 출처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즉 물리적·형식적·내력적·지적 요소들이 통합되어 발견되기 때문에 출처관련 정보를 얻는 것이 매우 용이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전자기록물의 경우 부처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출처를 갖는 기록물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링크,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통합 관리됨으로써 전통적 개념에서와 같이 책임있는 생산자, 내력, 출처 등을 규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다양한 정보미디어의 사용, 기록물의 이용확산과 이에 따른 전문적 요구의 증가 역시 오늘날 출처주의 개념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화환경이라 할 수 있다.

3.2 출처 개념의 확대

전술한 바와 같이 출처주의는 각 나라별 기록관리 전통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조직이 출처 및 폰드 설정의 주요 기반이 되어 왔다. '연원이 되는 기관'을 '기록물을 생산·접수한 기관' 등과 동일시 한 것인데, 이 역시 유럽의 등록소를 해당 기록물의 출처로 여기던 전통적 관리방식에 기인한 것이다.

근대 기록관리의 선구자인 쟈킨슨은 프랑스의 폰드에 해당하는 독일의 아키프(archief)를 자신의 이론에서 "아카이브즈 그룹"로 번역, 이를 행정결과 발생하는 일체의 비현용적 아카이브즈라 정의한 바 있다. 즉 업무의 모든 측면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그 자체가 하나의 유기체를 형성, 어떤 외적 개입없이 완전·독립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하나의 기록물군을 이룬 것인데, 쟈킨슨은 이러한 특성을 갖는 기록물 관리단위를 독립된 하나의 행정부처로 보았다. 아카이브 그룹을 단일 행정부처에서 작성·접수된 일체의 기록물들로 전제한다는 점에서 쟈킨슨은 물리적 실체로서의 폰드개념을 전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레코드 그룹(record group)을 폰드 개념으로 삼고 있는데, 이 역시 기본적으로 조직계통을 기반으로 하며 주요 기관이나 단체의 기록들을 그 설정 단위로 삼는다. 다만 그 설정은 조직은 물론, 기록물들간의 조직·기능적 관련성, 주제, 동일한 활동, 특정 물리적 형태, 기록물의 양과 복잡성, 생산·접수·이용의 관계까지를 고려하고 있다. 어떤 경우 행정적·기능적 관계를 갖는 몇몇 작고 수명이 짧은 기관들을 모아 단일 레코드그룹

으로 설정한 경우도 있다(NARA 2001). 따라서 레코드 그룹은 특정 통제·정리 목적에 맞게 다소 임의적으로 설정된, 보다 융통성을 갖춘 관리단위라는 점에서 전술한 아카이브 그룹과 비교해 보면 행정기구의 변화를 보다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록군을 설정하는 기준요소가 훨씬 다양하다는 점에서 첸킨슨이 주장한 아카이브즈 그룹의 완전성과 독립성은 반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기본적으로 기록물의 조직적 연원을 증시하며 실무적 차원에서 기록군을 설정, 물리적 실체로서의 폰드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레코드 그룹 역시 전통적 관점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⁷⁾

물리적 조직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출처주의 개념은 오늘날 행정조직 및 기능의 유동적 특성으로 그 적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이전의 전통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론적·개념적인 구조로서의 출처개념이 요구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출처는 '기록물 생산자(record creator)로 지칭되는 주체'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를 좀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선 '생산자(creator)'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 SAA는 다음과 같이 정의내리고 있다.

문서를 생산, 접수, 누적한 개인이나 조직(Bellardo 1992, 9)⁸⁾

즉 '생산자'는 해당 기록물을 생산한 주체는 물론, 이를 접수해 누적·보존·이용⁹⁾한 관련 주체-기관·사람·단체-들의 일련의 계통이라 할 수 있다.¹⁰⁾ 또한 단지 폰드 단위에서만이 아닌, 폰드 아래 시리즈 단위 내에서도 다양한 생산자가 존재할 수 있다. 결국 출처 역시

7) 조직의 경우에도 부처를 단위로 삼는 영국과 달리 통제의 편의성과 레코드그룹의 크기를 고려해, 각국(bureau)을 포함하여 큰 기관(agency)을 레코드그룹의 기본설정단위로 삼고 있다. 따라서 레코드 그룹은 출처에 있어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작성기관을 단위로 한 레코드 그룹과 통제·이관한 기록물로서의 레코드 그룹들 간에 혼동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Cook 1992, 48-49). 또한 일반 레코드그룹, 집합적 레코드그룹 등 다양한 성격의 레코드 그룹을 설정하고 있어 그룹간의 증거성 역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8) 따라서 생산자는 기록물의 통제기관, 기증자, 기원이 되는 부서, 이관 기관 등과 관련되는 것이라 제시하고 있다.

9) 누적이란 생산 혹은 접수된 기록물들을 관련기록들과 그룹핑하는 활동이며, 이용은 개인·조직 활동의 수행과정에서 관련 생산자가 이들 기록물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10) 최근에는 생산성의 특성을 구분하여 1차적 출처와 2차적 출처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즉 기록물이 하나의 생산기관 혹은 개인에서 다른 기관 혹은 개인으로 넘겨져 관리되는 경우, 원래의 생산기관을 1차적 출처, 이후 기록물을 보관한 주체를 2차적 출처로 구분하기도 한다(Lindh 1994, 195).

레코드 센터로 기록물이 이관되기 이전 업무수행과정에서 기록물을 생산·누적·관리·이용한 조직이나 개인

기록물의 연원과 보관(custodial) 역사에 대한 정보(Bellardo 1992, 27)

즉 출처는 단순한 기록물의 작성주체, 혹은 단일 기관에서의 보존관리 주체의 계통이 아닌, 단일 기관 및 개인의 범주를 초월한 기록물 관리과정의 체측면에서 발생하는 생산성의 계통을 모두 반영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즉 기록물이 생산되어 관리되는 활동 전반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해당 기록물이 생산된 조직적 출처, 보관 기관으로서의 출처, 중간 관리체로서의 출처 등 유기적 관련성을 가지고 연계되어 있는 각 출처간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최근 유럽에서는 출처의 규명을 위해 조직구조의 검토 외에 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동시에 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능의 검토를 통해 기록물의 생산·관리·누적·이용의 구조가 더욱 명확히 규명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며, 나아가 최근 기능의 수행이 조직 계통구조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능적 출처(Functional Provenance)'라 하는 이 입장은 출처를 조직구조 자체보다는 해당 기록물이 생산된 기능의 계통, 또는 기록물을 생산·저장·보존·접근하는 레코드 시스템상의 각종 내력정보의 기준에 따라 그 연원을 규명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이 경우 행정 및 정치변화에 의해 야기되는 시리즈들의 다중생산자(Multiple creator) 문제가 지적통제를 통해 관리될 수 있게 되며, 권한의 이전에 따른 기능 및 기록물의 이전도 허용되게 된다. 결국 출처는 단순한 물리적 조직단위로서의 개념이 아닌, 탈조직적이고 기능적·내력적 특성을 갖게 되며 이는 조직을 증시하는 전통적 개념과는 커다란 차이를 갖게 된다.

한편 출처주의를 폰드 존중의 원칙과 원질서 존중의 원칙의 통합된 개념이라 전제할 때, 폰드 역시 개념의 확대가 필요하다. 프랑스의 폰드는 역사적 메뉴스크립트 관리나 유사성 격을 갖는 기관들을 묶는 단위개념이었고 영국은 단일 행정단위에서 생산된 일체의 기록물들을 규정하는 단위였다. 그러나 최근 기록물을 생산한 개인과 조직은 여타 다른 기능과 책임의 맥락 속에서 활동을 수행하므로, 해당 기록물의 가치와 질은 그 내력 가운데 다

른 기록물들과의 관계 파악을 통해 결정된다고 본다. 이때 내력 정보란 기록물과 관련된 각종 활동, 기능, 형태상의 상호관계, 행정구조의 변화 과정 등을 반영한 생산·누적·이용의 패턴에 관한 정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폰드는 모든 공적·사적 기록물을 포괄하는 개념임과 동시에 고정된 실체가 아닌, 생산자의 변화·권한·행위·활동·기록물 관리업무·정책적 결정 등을 모두 반영하는 하나의 이론적 개념체로 이해된다. 즉 폰드 역시 단선적 조직구조에 기반한 물리적 정리단위의 개념이 아니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유기체로서, 다양한 출처를 허용하는 지적·추상적·관념적·이론적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원질서 역시 폰드 내(물리 등), 아카이브즈 그룹 내(젠킨슨), 또는 시리즈 내(헬렌버그)에 설정된 기존의 정리 방식이라는 전통적 개념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즉 활용 동안 형성된 폰드 내 내적 구조의 물리적 순서를 의미하는 전통적 개념을 고수할 경우, 이관 시점이 다른 특정 시리즈 내의 다른 기록물은 보존소로 이미 이관되어 관리되는 해당 시리즈 내의 기록물들 사이에 추후 다시 끼워 넣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보존소로의 이관시점에 발생하는 여타 관리상의 정보는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바(Barr, D.)는 원질서 역시 기록물이 이용되는 동안의 물리적인 내적 순서라기보다는 기록물에 대한 모든 조직적 활동의 증거를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 그 본래적 개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Edwards 2001). 즉 원질서는 생산단계의 활동을 보여줄 수 있는 기록물의 자연스러운 누적 패턴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생산자 기능에 따른 기록물 구조의 재구축이라는 보다 발전된 개념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생산자 기능이 기록물의 물리적 순서라기보다는 지적순서에 부합하는 개념이라 점에서 원질서는 생산기관과 기록정보들에 존재하는 기능들 간 내력관계의 재구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라 보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체계의 변화로 새로운 질서가 발생한다면 아키비스트는 생산자의 기능 분석은 물론, 기록물의 구조와 질서·기록물 형태·관리 내력·행정과정·파일링 시스템 등의 구조, 히스토리 등을 분석, 지적개념의 원질서를 규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Cook 1992, 76-77).

3.3 출처의 규명과 적용

확대된 개념에 근거해 기록물 출처에 대한 규명은 여러 차원에서 진행되는데, 일반적으로 출처의 외적 구조를 규명하는 데에 있어 가장 기본은 이미 언급한대로 조직과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즉 출처는 조직에 기반해 특정 시기의 특정 기능에 기초해 설정되는 것이 그 간의 일반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조직과 기능은 이론적으로 분리되어 설명될 뿐, 실재에 있어선 상호 융합되어 존재한다. 조직은 그 구성원들에게 특정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조직을 유지하며, 기능은 이들 조직의 목표실현을 위해 설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직과 기능은 분리될 수 없는 표리관계이며, 출처 역시 조직과 기능의 통합적 관계 속에서 이를 반영하여 설정되게 된다.

이러한 양자의 관계 속에서 출처가 되는 대상단위의 설정은 국가별 관리전통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조직을 강조하는 최대주의자적(Maximalist) 관점과 기능을 강조하는 최소주의자적(Minimalist) 관점이 그것이다.

최대주의는 조직·기능이란 결국 가장 상위단계로 통합된다는 점에서 단일 행정부처(department, 혹은 Ministry) 내의 모든 기록물을 하나의 폰드로 설정한다(Duchein 1983, 68). 영국과 동유럽의 기록관리전통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로 조직을 중시하는 전통적 폰드 개념을 지원하는데, 켄킨슨의 ‘아카이브 그룹’은 하나의 부처를 독립된 폰드로 설정하고 있는 최대주의 관점의 전형이다. 각 폰드는 부처의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의 완벽한 폰드 단위를 형성, 각기 독립적으로 다루어지며 외적 권한의 개입 없이 모든 업무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한다. 최대주의 관점은 개념의 적용이 간단하고, 통일된 전체적 관점에서 폰드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간섭이나 개입을 받지 않고 완전히 독립·절대적 권한을 갖는 부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단일 부처 내의 내부단위들 역시 다양한 하위 단계에서 생산한 파일시리즈들은 상위 부처단위의 폰드와 상호의존적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최대주의자들은 단일 폰드 내에 하위 폰드(sub-fond), 혹은 그 하위 폰드(sub-sub-fond)를 설정, 폰드를 계층화시킨다. 그러나 폰드 내 하위 레벨단위들 역시 조직계층의 변동에 따라 통합, 분리,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지속적인 단일 폰드로 유지시키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된다.

두체인(Michael Duchein)은 “Theoretical Principle and Practical Problem of Respect des fonds in Archival Science”에서 폰드를 구성하는 단위 기관의 기준을 다음의 5가지로

제안한 바 있다(Duchein 1982, 70).

- 법적 존재(legal identity)
 - 자체 법적 명칭을 가져야 하며 법에서 규정된 법적 존재여야 함.
- 공적의무(official Mandate)
 - 법률 및 법규에 의해 정의된 명확하고 안정된 실질적 권한을 가져야 함.
- 명확한 행정계층 상 위치
 - 행정계층 상의 위치가 법규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계층구조 상에서 상위기관, 하위기관을 알 수 있고 다른 기관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책임 있는 장과 자율
 - 의사결정력을 갖는 장이 있고, 이들은 상위 결정을 수동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함. 즉 자체 펀드를 구성하기 위해 적어도 특정 사안에 대해선 의사 결정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조직 차트
 - 가능한 한 생산자의 내부조직은 조직차트 상에 나타나 있어야 함.

그는 단위 부처내 조직의 변화는 펀드 내 내적 맥락의 변화에 불과한 것일 뿐, 펀드 성격 자체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며 간접적으로 최대주의자들의 입장을 옹호하였다. 다만 조직의 법적 권한의 변동이 복잡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는데, 이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하나의 생산자(a single creator)만을 전제하는 두체인의 견해는 전통적 행정조직에 적합할 뿐, 오늘날의 유동적 행정계통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특히 최근 전자기록물 DB와 같이 법적 행정단위의 범주를 넘어 각 부처, 기관들이 정보를 공유하며 발생하는 다중생산자의 문제 등에 대해선 가능한 기능을 단위로 이를 수행하는 가장 작은 하위 행정단위로까지 펀드 설정단위를 축소시킨다.

최대주의적 견해와 반대로 최소주의자들은 가능한 기능수행 단위까지로 축소, 가장 작은 하위 행정단위를 펀드의 구성단위로 삼고 있다(Duchein 1983, 69). 행정계통상의 위치 혹은 독립성에 근거해 부처를 펀드의 설정단위로 보았던 젠킨슨과 달리, 대표적 최소주의자인 스코트(Scott)와 페니(Penny)는 명확한 명칭을 가지고 법률에 기반해 설립되었다 할

지라도 독립된 기록물 관리체제를 갖지 않고 여타 기관의 파일링 시스템을 공유한다면 이들 기관은 폰드를 구축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다(Hurley 1998). 즉 최소주의자들은 명확하고 지속적인 명칭과 자체 독립적인 레코드키퍼 시스템을 갖고 있다면 행정계통의 어떤 레벨에 있든 폰드의 설정 단위로서 기록물 생산자 위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만일 해당 기관의 상위 조직이 있다하더라도 이들 조직은 생산자들을 연계하여 개념적으로 그룹핑하는 역할은 수행할 뿐, 폰드를 구성하는 생산자의 위치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¹¹⁾

최소주의자들은 조직보다는 기능을 폰드 구성의 중심으로 본다. 유동적인 특성을 갖는 조직보다 기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기록물의 정리기술은 조직을 반영하고 있는 아카이브 그룹 단위보다는 기능을 반영하고 있는 시리즈 단위를 기본 단위로 삼아 이를 기술하고 그 관련 생산자·생산·누적·관리·이용 주체·들을 지적으로 통제, 이들과 연계시키는 방식을 취한다. 기능을 반영하는 시리즈는 그 기원과 상관없이 연대기적 혹은 논리적 순서에 따라 구성된 기록물의 연속체라는 점에서 행정적 맥락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관리되게 된다(Cook 1992, 45).¹²⁾ 따라서 최소주의자들은 특정 시리즈에 관계된 모든 생산자를 연계시킬 경우, 폰드의 설정·출처규명은 물론 오늘날 조직계통상의 유동성과 다중생산자의 문제까지도 해결 가능하다고 본다. 호주의 경우, 각 시리즈들의 역할과 내용은 물론 동일 생산자에 대한 다양한 시리즈들간의 맥락과 상호관계성을 강조함으로써 기록물의 기능적 연원을 명확히 규명하고 있다.

이처럼 최대주의·최소주의 모두 조직과 기능, 그리고 이것의 안전성과 지속성이 생산성 규명에 중요 전제가 된다는 데에 동의한다. 단 최대주의가 하나 전체로서의 폰드를 위해 조직계통상 최고 레벨의 기관을 강조한다면, 최소주의는 독립된 기록물보유체제를 갖추고 있는 조직계통은 그것이 어떤 레벨에 있든 폰드 구성이 가능하다고 본다. 결국 최소주의자들에게 있어 폰드는 어떤 단위 기관들과 관련하여 일정 기능계통의 수행결과 구축된 일련의 기록물 전체라는 개념적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최대주의자들이 규정하고 있는 전통적 폰드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11) 단 폰드를 너무 낮은 기능 수준으로 설정할 경우 폰드가 갖는 최종적인 전체에 대한 상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12) 시리즈는 기능, 활동 외에도 기타 주제, 형태, 접수·생산·이용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유지되는 하나의 파일단위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발전하여 최근 폰드를 조직들이 생산·저장·보존·접근하는 레코드시스템 자체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전자화된 기록관리상황에서 특히 설득력을 갖는데, 새로운 기능이 특정 기관에 부여될 경우 새로운 문서형태와 파일시리즈, 그리고 새로운 별도의 기록물보유시스템을 유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해당 시스템을 분석한다면 관련 기능은 물론 생산·배포 내력과 그 과정까지도 모두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Bearman 1993). 즉 조직과 기능을 초월해 데이터의 구조, 데이터들간의 관계, 생산·유통·배포 방법 등에 대한 구조 등 레코드 보유시스템 전체 속에서 폰드의 조직방식을 이해하는 것이다. 결국 오늘날 전자기록물의 출처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지적·추상적 구조로서의 출처개념의 적용이 필수적 전제라 할 수 있다.

4 새로운 출처주의 개념과 그 적용을 위한 과제

오늘날 출처주의 개념이 '추상적·이론적·개념적·지적·기능적·다중 출처주의'의 의미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처의 규명을 통해 기록물의 증거성·정보성을 보존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개념적 구조를 갖춘 출처주의 개념을 실제 기록관리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은 각국의 기록물관리전통, 기록물 관리체의 성격이나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모색될 수밖에 없다.

그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는 전통적인 기록관리시스템 자체의 획기적 전환인데, 호주의 경우 전통적인 폰드기반 시스템을 포기하고 시리즈기반 시스템을 적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¹³⁾ 즉 레코드 그룹 차원의 물리적인 정리체계를 포기하고 시리즈를 기반으로 한 정리·기술 방법을 채택하되, 해당 시리즈와 관련된 각 생산자-조직, 기관, 가족, 개인, 프로젝트팀, 정부차체-관련 정보, 그리고 생산내력 정보-역사적·행정적 내력, 기능·활동, 연대적·법률적 관계, 기타 접근점이 될만한 내력정보-를 기록물에 대한 기술과 분리해 관리, 관련되는 각 기술영역들을 링크시킴으로써 출처주의 적용을 위한 새로운 방안

13) 호주의 경우 처음에는 레코드 그룹 방식을 사용하려 했으나, 셀렌버그의 조언에 따라 자체 기록물관리시스템을 개발, 시리즈 시스템을 채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각종 역사적 메뉴스크립트 등의 경우 레코드그룹 개념을 적용하기도 한다(Cunningham 1998).

을 모색하고 있다. 이때 시리즈는 단순히 기능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 기록물의 다양한 내용적·물리적 유형, 혹은 형식까지를 모두 고려한 것이 된다.

그 결과 기록물과 출처정보는 기술을 통해 지적으로 연계되어 관리되는 것일 뿐, 물리적 차원의 정리방식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생산, 관리, 이용과정에 참여한 여러 생산자에 대한 정보는 각각의 개별 시리즈들과 서로 다중적으로 링크됨으로써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의미의 폰드¹⁴⁾를 구축하게 되며, 각종 행정적·기능적 변화가 나타날 경우에도 각 영역간의 링크를 통해 그 변화의 내력을 유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결국 하나의 시리즈에 다중의 출처를 허용함으로써 오늘날 발생하는 각종 출처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¹⁵⁾ 이 경우 출처는 물리적 실체로서의 개념이 아닌, 추상적·이론적·지적 구조가 되며, 기술은 그것을 구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그러나 시리즈 기반 시스템은 하나의 전체 기록물군이 무엇인지 규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폰드를 관리단위의 기본으로 하되, 다만 출처변동과 다중출처성의 문제는 전거제어와 색인, 그리고 다계층 기술 등의 서지적 방식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일정 조직을 폰드의 구성단위로 삼되, 기록물 기술영역과 생산자 및 출처맥락에 대한 전거 레코드를 별도로 구축, 그 변동내력을 관리한다면 폰드가 갖는 전체성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조직이 갖는 유동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즉 다계층 기술과 전거레코드가 기록물의 다중생산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검토되고 있다. 이때 전거레코드는 행정적·기능적 변화가 발생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수정, 구축되어야 하며 이러한 레코드는 해당 기록물의 관리를 위한 중요한 내력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ISAD(G)의 제정과 함께 ISSAR(CPF)가 함께 제안된 것은 이처럼 폰드를 기반으로 한 ISAD(G)의 효과적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분히 개념적인 의미의 생산자를 전제하고, 생산자와 기록물간의 관련성을 다계층적 기술을 통해 규명함으로써 출처 역시 지적이고 이론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한편 분류와 스케줄을 통합·작성하여 기록물이 생산되는 시점, 혹은 그 이전으로부터의 기록물에 대한 표준적 분류를 수행, 폰드나 시리즈의 구조를 통제하는 경우도 있다. 아

14) 시리즈기반 시스템에서의 폰드는 관련된 시리즈, 파일, 아이템들의 총합이라는 의미에 불과하다.

15) 나아가 하나의 시리즈에 대한 다중생산자, 한 생산자에 대한 다중시리즈, 다중생산자에 대한 다중시리즈의 관리까지 가능해진다.

카이브즈가 레코드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는 유럽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것인데, 조직단위와 기능단위의 설정으로 조직별 기능 및 활동의 변동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레코드 단계로부터 출처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출처에 대한 통제도 가능해지며 기타 각종 내력정보, 명칭·권한의 변화, 업무·기능의 변동내력 등이 이전 단계로부터 통제·관리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통합된 기록물 관리시스템을 개발, 모든 기록물들이 생산단계로부터 내력정보를 보존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생산시점으로부터 기록물은 소속 폰드는 물론, 그것의 특성, 향후 이루어질 처리방법까지 파악될 수 있으며, 각 단계에서 기록물의 조직적·기능적 출처도 계층간 링크를 통해 명확히 확인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전거레코드의 관리를 통해 생산기관의 명칭이나 기능의 변동내력은 즉각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또 별도의 각 영역별 전거레코드 관리를 통해 다양한 조직레벨에서의 기술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능별·주제별 연계를 통한 복합적 출처관리의 가능성까지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분류스케줄이 조직이나 기능의 단위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였을 경우, 혹은 그 변동내력을 관리하지 못하였을 경우, 출처관리를 위한 통합된 분류스케줄은 그 적용에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폰드나 시리즈가 단순히 분류스케줄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나의 기준에 따라 정의되는 것이 아닌, 여러 내력에 대한 협의를 통해 구축되는 다분히 개념적인 관리단위라는 점에서 조직별 기능만을 반영한 이 방법 역시 비판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전자기록물의 경우, 메타데이터의 구축을 통해 기록물의 법적 가치, 출처 등을 보존하고, 보존처리 결정과 이용조건 등을 시스템화할 수 있다. 종이기록물과 달리 전자기록물의 경우 한번 원질서나 내력에 대한 정보를 상실하면 이를 재구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출처의 문제는 종이 기록물에서보다 전자기록물에 있어 더 중요한 문제가 된다. 출처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산 기록관리시스템 설계과정에서부터 메타데이터를 포함시켜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는 데이터의 정의·구조·적용, 행정 역사, 입수기록, 기타 내력데이터, 기록물 이용자에 관한 데이터, 보존 내력, 파일들 간의 관계, 시스템이 지원하는 기능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게 된다.

표준화된 메타데이터는 기록물을 규명·인증하고, 그 구조를 도큐먼트한다. 또 생산맥락은 물론, 시공간의 이동과 함께 변동될 수 있는 기록물의 내용과 의미를 보존할 수 있도록 조직과 기능적 관련성 등의 내력들을 기록물 관련정보들과의 링크를 통해 도큐멘테이

션을 제공한다. 그 외에도 메타데이터는 접근·보유·처리의 조건과 기간, 기록물의 검색과 이용역사, 이용조건 및 제한, 프라이버시에 대한 관리도 통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리, 기술, 평가, 보존, 이용·접근 등 전체 관리과정들을 하나의 통합된 관리체제로 묶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전자기록물의 출처는 기술을 통해 규명되는 것이 아니라 메타데이터로부터 포착되어 통제될 수 있게 된다. 그러한 까닭에 전자기록물 출처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의 구축에는 아키비스트들이 그 설계과정에서부터 참여, 생산으로부터 전체 관리단계에 이르는 기록물들의 논리적 관계는 물론, 출처 및 생산에 대한 충분한 내력정보들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다양한 출처 내력들이 기술을 통해 구현되기 위해선 이들 출처관련 요소들이 모두 반영된 국가적 차원의 기술표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표준은 ISAD(G), ISAAR(CPF), MARC 등과 같은 각종 국제·국가표준의 기본 원칙들과 부합하고, 여타 다른 기술규칙들과도 상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기록물의 출처 및 내력정보를 제공하는 메타데이터 역시 관련 기능, 활동, 조직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상의 기술정보에 근거해 구축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것의 마련은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출처 및 폰드 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 폰드 설정시의 기준¹⁶⁾, 행정계통 및 기능 검토시 고려할 사항, 조직과 기능의 이전·통합·폐지 등 변동시 관련 폰드들의 처리방안, 폰드 설정 및 폐쇄에 관한 내용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들에 대해 기본적인 지침을 정하고 이를 가이드라인에 명시함으로써 출처 및 폰드 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5 결론

출처주의는 아키비스트와 연구자들에게 기록물의 연원과 기능적 맥락에 대한 각종 내력정보를 확보·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며 기록물의 정리·기술·검색, 평가선별을 위한 실

16) 예를 들어 캐나다의 경우, 마지막 생산자명을 출처규명을 위한 표목의 일차적 접근점으로 삼는다 (Stibbe 1992, 121).

질적 방안을 제시해 주는 기록물 관리의 기본 원칙이다. 전통적 기록물관리 시대나, 오늘날의 전자기록물 시대에도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최근 기록관리환경의 변화로 물리적 관리를 위한 전통적인 출처개념은 그 적용에 있어 많은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이러한 환경의 변화를 반영, 조직을 중시하던 전통적 개념으로부터 보다 추상적이고 지적인 개념으로 그 개념이 점차 확대·변화되어 가고 있다. 즉 물리적 실체로서의 폰드 개념을 포기하고 보다 추상적·개념적 차원으로의 해석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점에 있어 출처주의는 고정불변의 정체된 원칙이 아닌,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관리원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융통성을 갖는 적용방식은 조직은 물론, 기능과 내력을 중시, 기록물의 다양한 생산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폰드의 구성을 전제하고 있다. 이점에 있어 오늘날에는 기능을 강조하는 최소주의 관점이 다양한 내력관계를 유기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어떠한 관점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자체 기록관리의 전통, 기관의 성격, 그리고 기관 권한의 크기 정도, 기능의 수행방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추상적·개념적 출처개념의 실질적 적용의 문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될 수 있는데, 호주의 시리즈기반 시스템과 같이 새로운 기록관리체제에 대한 시도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전통적인 폰드기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만 기술을 통해 국가적 요구에 맞게 이론적 개념적 폰드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것의 실현은 생산자와 그 내력정보에 대한 전거제어, 그리고 기능을 기반으로 기록물을 별도로 분리, 기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각 기술영역은 행정내력의 변화를 반영, 유기적으로 링크됨으로써 폰드의 전체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계층기술, 색인 등의 각종 서지적 방식을 통해 기존 폰드기반 시스템이 극복하지 못한 하위폰드들과의 관계, 다중생산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밖에 분류와 스케줄을 통합, 내적·외적 출처의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생산단계, 혹은 그 이전부터 출처 및 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도 한다. 복잡한 데이터 구조와 함께 내력정보를 포착하기 어려운 전자기록물의 경우 출처의 규명이 더욱 어려운데, 이것 역시 시스템 내의 메타데이터의 구축을 통해 출처 및 각종 관리·내력정보를 통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그러나 개념적 출처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각종 출처관련 정보들이 통제되

고 포착될 수 있도록 작성된 표준화된 기술규칙의 마련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Bellardo, Lewis J., Bellardo, Lynn Lady. 1992. A Glossary for Archivists, Manuscript Curators, and Records Managers. Chicago: SAA.
- Cook, Terry. 1992. The Concept of the Archival Fonds: Theory, Description and Provenance in the Post-Custodial Era. 31-85. The Archival Fonds: From Theory to Practice. Canada: Bureau of Canadian Archivists.
- Duchain, Michel. 1983. Theoretical Principles and Practical Problems of Respect des Fonds on Archival Science. *Archivaria*. 16. 64-82.
- Erlandsson, Alf. 1994. The Principle of Provenance and the Concepts of Records Creator and Record Legal Development. 『The Principle of Provenance; First Stockholm Conference Archival Theory and Principle of Provenance 2-3 sept. 1993』. Sweden: Swedish National Archives. 33-49.
- Gränström, Claes. 1994. The Janus Syndrome. 『The Principle of Provenance; First Stockholm Conference Archival Theory and Principle of Provenance 2-3 sept. 1993』. Sweden: Swedish National Archives. 11-23.
- Horsman, Peter. 1994. Taming Elephant and Orthodox Approach to the Principle of Provenance. 『The Principle of Provenance; First Stockholm Conference Archival Theory and Principle of Provenance 2-3 sept. 1993』. Sweden: Swedish National Archives. 51-63.
- Lindh, Björn. 1994. Accomplishing the Unfeasible Defining and Describing Concepts of Records Creator and Record. 『The Principle of Provenance; First Stockholm Conference Archival Theory and Principle of Provenance 2-3 sept. 1993』. Sweden: Swedish National Archives. 25-32.
- Menne-Haritz, Angelika. 1994. Appraisal or Selection.; Can a Content Oriented

- Appraisal be Harmonized with the Principle of Provenance. 『The Principle of Provenance; First Stockholm Conference Archival Theory and Principle of Provenance 2-3 sept. 1993』. Sweden: Swedish National Archives. 103-131.
- Miller, Fredric M. 1990. Arranging and Describing Archives and Manuscripts. Chicago: SAA.
- Pohjola, Raimo. 1994. The Principle of Provenance and the Arrangement of Record/Archives. 『The Principle of Provenance; First Stockholm Conference Archival Theory and Principle of Provenance 2-3 sept. 1993』. Sweden: Swedish National Archives. 87-101.
- Schellenberg, Theodore R. 1956. 『Modern Archives: Principles and Techniqu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cott, Peter J. 1966. The Record Group Concept; A Case for Abandonment. The American Archivist. 29(4). 493-504.
- Stibbe, Hugo. 1992. Implementing the Concept of Fonds: Primary Access Point, Multilevel Description and Authority Control. Archivaria. 34. 109-137.
- Edwards, Robert. 2001. With Respect to Original Order; Changing Values in Archival Arrangement. AABC News Letter. 11(1).
(http://aabc.bc.ca/aabc/newsletter/11_1/with_respect_to_original_ord...html.)
- Bearman, David. 1993. Record-Keeping System.
(http://www.scis.ecu.au/external/ist1121_4121.../module_03_02.html.)
- Cunningham, Adrian. 1998. Dynamic Descriptions; Australian Strategies for the Intellectual Control of Records and Recordkeeping Systems.
(<http://www.naa.gov.au/recordkeeping/control/strategies/default.htm>)
- Hurley, Chris. 1998. Problem with Provenance.
(<http://rerg.dstc.edu.au/publications/provenance.html>)
- NARA. 2001. The Record Group Concept.
<http://www.nara.gov/research/tools/rgconcept.html>)